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제2차)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2. 31.(화) 08:00 ~ 11:00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메이플룸

□ 참 석 : 위원 9명 중 9명 참석

○ 참석위원

- 외부위원 : 박익수 위원장, 김재원 부위원장, 오영상 위원
- 학교대표 : 학생처장, 기획처장, 재정전략실장
- 학생대표 : 정규성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김민석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홍지수 대학원 총학생회 사무총장

2. 회의 내용

□ 안건 심의

○ 2020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 회의 내용

< 위원장 개회 선언 >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추가자료 관련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설립준비단 이재진 부단장이 입실하여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관련 추가 자료에 대하여 설명 >

- 학생대표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의 추가 수입재원은 등록금과 국고출연금 외에 무엇인가?
- 부단장 : 간접비 수입이 있음.
- 학교대표 : 초기에는 힘들어도 대학원 운영이 안정화되면 간접비 수입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함.

- 학교대표 : 책정(안)대로 등록금 책정 시 10년 간 연 평균 등록금 수입액이 약 9억 원임. 그런데 대학원 설립 시 초기 비용을 제외하고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연간 약 20억으로 예상됨. 등록금 책정액을 더 올리지 않을 경우 학교 전체적으로는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 것임. 추후 대학원의 운영이 안정화된 후 간접비 등 다른 예산을 고려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등록금 인상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설립준비단 이재진 부단장 퇴실 >

○ 전차 회의록 관련

< 간사, 전차 회의록 낭독 >

- 위원장 : 회의록에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회의록을 접수하기로 함 >

○ 학생위원과 학교 간 간담회 자료 관련

< 간사, 학생위원과 학교 간 간담회 자료 설명 >

- 외부위원 : 간담회 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리한 회의록은 없나?
- 간 사 : 공식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리된 자료는 없고, 당시 논의한 내용은 간담회 회의 자료 설명 시 간략히 구두로 설명 드렸음.
- 외부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조기 개최는 매년 학생위원 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항상 시일이 촉박하게 열리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함. 학교 측이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 학생들을 설득하고 등록금을 인상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학교 측의 논리는

모든 예산이 확정된 후 적자액을 채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임. 등록금심의위원회 도입의 취지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며 서로의 입장을 납득해가자는 것임. 그런데 그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생위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

- 학교위원 : 등록금은 정치상황화 돼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위원장 : 회의 개최 전 회의 자료를 미리 보내주는 것은 필요함. 위원들이 미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야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함.
- 학생위원 : 현재와 같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으로는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기 개최를 요구했으나 또 지켜지지 않았음. 학교 측에서는 차년도 출연금 확보를 위한 국회 심의 대응으로 조기개최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사유나 일정을 알려주시면 납득 가능할 것이므로 공유해줬으면 함.
- 학생위원 : 재경위원회 학생 참여는 서울대법 개정안 때문에 보류 중이므로 대신 참관에 대한 논의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 학교위원 : 재경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 의견을 전달해보겠음. 장애학생의 9학점 이하 수강 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건의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간담회에서 논의했음. 그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파악해보니 대상자가 너무 적어 감면의 형식이 아닌 장학금 지원 방식으로 방법을 강구중임.
- 학생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대략적인 내용만 남기다 보니 회의 시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 있음.
- 위원장 : 그런 부분들은 서로 보완해 나가면 됨.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전체 위원들께 보내서 의견을 구하고 회의록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

- **ㅇ 2020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관련**

- 학생위원 : 학생 측 요구안을 설명하겠음. 장애학생 9학점 이하 수강 시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에 대해 관련 진행상황을 말씀해 달라.

- 학교위원 : 이 제도를 건의하신 학부모 및 학생 측과 장애학생 간담회에서 논의했으나, 실제 수혜대상 학생 수가 매우 적어 실효성이 적다는 데 양측 모두 동의함. 그래서 현재 개편 중인 장학금 제도에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을 넣는 방안을 고민 중임.
- 학생위원 : 학교 측의 등록금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말씀해 달라.
- 학교위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 다전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학교 측에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출연금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등록금 인상의 사유는 많음. 그러나 정부정책 가이드라인도 따라야 하는 등 학교 측에서는 고려할 사안이 많음. 따라서 학부 등록금은 동결을 생각 중이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 그러니 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먼저 심의 후 2020 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 했으면 함.
- 학생위원 : 학생 측 요구안에 대해 추가로 설명 드리자면 대학원 입학금 폐지를 요청함. 학부 입학과 대학원 입학이 절차상 다르지 않은데 대학원만 입학금이 존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대학원 입학으로 인한 별도의 소요경비가 없기 때문임. 또한 대학원 등록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신입생 충원율도 이미 70%대이므로 입학금 폐지를 통해 대학원 입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약속은 어렵겠지만 단과대학별 세부 결산내역을 요구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제시된 적자액의 논거는 항상 전년도 본예산을 바탕으로 산출하는데 단과대학별 결산을 봤을 때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대학원 장학금 등 교육 관련 목적으로 잡혀있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타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며, 행사비 또는 홍보비로도 전용되었음. 세부 결산자료 집계 시 과도한 지출내역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함. 그러므로 단과대학별 결산자료 없이 단과대학 혹은 학과별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함. 본부에서 단과대학에 운영비 결산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안건인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책정(안)대로 동결에 찬성함.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책정(안)대로 등록금 책정 시 등록금 수입액이 대학원을 운영하기에 부족하므로 학교의 타 예산이 집행된다면 학생 측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음. 그래서 추가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방안이 없다면 등록금 추가 인상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함.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은 등록금의 인상이 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특이점임. 동일과정을 운영 중인 정부출연기관인 KDI의 등록금이 본교에 비해 두 배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인상을 제안함. 다만 인상되는 예산의 일부는 외국인 학생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요청함.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필수교양, 장애학생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생 측의 제안임.

- 학교위원 : 현재 학교에서는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 쯤 실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임. 대학원 입학률 저하는 입학금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해야 함.

  단과대학별 결산은 학교 입장에서도 각 단과대학의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학생위원 측 제안대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더 인상하라고 요청할 수 있나?

- 외부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각 대학원 측에서 요청한 책정(안) 범위 내에서 판단해야 하고, 위원회에서 등록금을 더 올리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 부분은 사전에 본부 측과 협의 시 논의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봄.

- 학교위원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운영이 정착될 2~3년 동안 지켜보며 학교의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 시 향후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학생위원 : 본부와 해당 대학원 간에 논의는 했겠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이 등록금 책정(안)을 처음 본 것임. 자료에서 드러나는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않을 때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됨. 등록금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까지도 추가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니면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위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학교위원 : 기본적인 대학원 운영비는 학교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므로 재정적자는 본부의 부담임. 타 단과대학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 초기 단계에 국고출연금 지원도 있으니 타 단과대학의 교육의 질 저하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 대학원에서 등록금 책정 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본교의 위상과 국립대로서의 책무성도 고려했을 것임.
- 위원장 :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기관인가?
- 학교위원 : 심의기구임. 종국적으로 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대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함.
- 위원장 : 그렇다면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등록금 책정액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더 올리라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움.
- 학생위원 : 해당기관에 추가의견을 검토요청하면 안되나?
- 학교위원 :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추가 가능액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위원장 : 그렇게 해서 해당기관에서 책정(안)을 변경하면 다시 심의를 해야 하지 않나? 서면심의 등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외부위원 :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추가 인상 검토를 요청하는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나, 요청하신 책정(안)에 대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더 올리자고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하신 위원의 의견에도 동의함. 그러므로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과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에 대한 등록금 책정(안)은 수요기관에서 요구한대로 확정해도 된다고 생각함.
- 학교위원 : 대신 학생위원 측에서 말씀하신 전체 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타당하므로 향후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도록 하자.
  본부 차원에서 단과대학에 결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조심스러움.

단과대학에서 본부로 예산 요구자료를 제출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본부에서 주는 운영비는 해마다 그대로이므로 출연금에 반영된 사업을 제외하면 신규로 예산을 받는 것은 불가능함. 그래서 예산과는 신규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이미 배정된 운영비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전용은 어떻게 하는지 통제를 안했음. 그리고 향후에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음. 다만 이런 자료에 대해 학생위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학생위원 :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학교 측에서 설명하는 차등등록금의 차액 부분에 대해 실제 실험실습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을 수 있으나, 그것을 기자재 비용이나 운영비의 항목에서 사용했으면 학교 측에서 제공한 자료로는 파악이 불가능.
- 학교위원 : 현재 단과대학별 등록금의 차액 부분에 대해 단과대학에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단과대학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므로 지출내역을 문의해보니 최소한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받는 등록금의 차액보다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실험실습비가 더 많은 것으로 소명이 된 것임.
- 학생위원 : 내년부터 단과대학별 결산내역을 요구하되, 제출하는 단과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단과대학의 제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학교위원 : 등록금을 더 내는 만큼 어디에 썼는지 궁금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단지 단과대학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측에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단과대학에서 해당 자료를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운가?
- 간　　사 :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단과대학에서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산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리고 본부가 현재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정산자료를 달라고 하면 단과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다며 반발할 수 있음.
- 학생위원 : 단과대학에 대한 자율성 침해가 아니라 학생들의 알권리 존중임.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함.

- 학교위원 : 현 상황을 살펴 대학(원)별 결산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사실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하나 서울대 내에서 단과대학의 자율성 보장도 보이지 않는 큰 줄기임. 하지만 학생의 알권리도 우선시되어야 할 측면이 있으니 실효성 있게 조화시켜보겠음.

- 외부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 시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학생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문제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인문대 학생이 공대 전공을 복수전공할 경우 인문대 등록금만 내고 공대 학생과 똑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음. 학부생 입장에서 등록금 관련 가장 큰 이슈는 이것임.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도 접근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사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학교위원 : 그래서 다전공 학생이 많은 학과에 예산을 더 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단과대학별 결산은 어떤 식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다만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실히 전달하겠음.

  대학원은 학부생과 달리 생활 지원도 필요하나, 대부분 교수 연구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이 어려움. 그러므로 대학원 등록금을 이대로 두는 것이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입학 시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지, 현재 구조대로 외부 연구비나 장학금에 의존해서 대학원생을 유치하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은 이제 힘들다고 봄. 현재 서울대가 대학원 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재원 측면에서 성장할 수 없는 구조임. 정부도 학부는 형평성, 대학원은 수익자 부담 관점에서 보므로 대학원 입학금에 대해 정부에서도 별로 언급이 없음. 그러므로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함.

- 학생위원 : 대학원생 등록금이 학부생 등록금에 비해 많이 걷히고 있으나 대학원생들에게 등록금을 낸 만큼 질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지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임. 그 와중에 학부 등록금이 동결되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을 이해할 사람은 없음. 대학원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근거를 가져오시기 바람.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인상률이 있나?

- 학교위원 : 논의를 위해 제안한다면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한도인 1.95% 인상, 학부 등록금은 동결로 제안함. 세법 개정 등으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도 충분히 노력했고, 출연금 심의 시에도 자체재원을 늘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등록금 인하는 선택하기 어려움.
- 학생위원 : 대학원생 등록률은 점차 감소 중임. 입학했던 학생들조차 학교에 실망해서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에 학교에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아닌데 등록금을 올린다고 하면 반발할 것임.
- 외부위원 : 작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 자료에는 학교 측의 등록금 책정(안)이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그리고 고등교육법 11조4항에 열거된 등록금 책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심의가 어려움. 예산부족액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학교 측의 등록금 책정(안) 및 참고 자료를 보충해서 추후 재논의할 필요.
- 학생위원 : 회의 자료를 보충하여 다시 만나야 할 것 같음.
- 학교위원 : 회의 자료를 보충하여 3차 회의 때 재심의하자.
- 학생위원 : 본부에서 단과대학에 결산자료를 요청해주기 바람.
- 학교위원 : 당장 차기 회의 개최 시까지 본부가 액션을 취하기는 쉽지 않음. 대신 차기 학사위원회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위원 측으로부터 대학(원)별 결산자료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음. 공식적으로 본부에서 단과대학으로 결산자료를 요청하는 문제는 판단이 필요함.
- 학생위원 : 본부 측의 명확한 액션이 없다면 학생위원으로서 심의에 동의하기 어려움.
- 학교위원 : 현실적으로 차기 회의 개최 시까지는 어려움. 다음 학사위원회 시 학생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약속하겠음. 그러나 지금 여러 정황상 원하는 대로 자료가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임.
- 학생위원 :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제안하신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
- 학교위원 : 그 근거가 합리적이라면 올릴 것인가?
- 학생위원 : 합리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대학원 등록금을 올릴 경우 학부 등록금도 같이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 등록금만

동결 제안인 것은 이미 합리성을 잃은 것임.

- 위원장 : 3차 회의를 1월 3일 오전 8시에 개최하기로 함. 이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침.

3. 결정 사항

□ 2020학년도 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관련

○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행정대학원 글로벌행정전공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함.
(단,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은 3년 간 초기 운영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

□ 학생위원 측의 대학(원)별 결산자료 제출 요청 관련

○ 학사위원회에 학생 측에서 대학(원)별 결산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음을 전달하기로 함.

□ 차기 회의 개최 : 2020년 1월 3일(금) 08:00

< 폐회 : 11:00 >

2019. 12. 31.